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동향분석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목 차

• 요약	1
I. 경제·금융 환경	3
1. 세계경제	3
2. 국내경제	4
3. 금융시장	6
4. 2022년 국내경제 전망	8
II. 보험산업 주요 동향	9
1. 코로나19와 보험산업	9
2. 생명보험 종목별 동향	12
3. 손해보험 종목별 동향	15
4. 2021년 상반기 성장성 및 수익성	20
5. 2021년 하반기 예상	21
III. 2022년 보험산업 전망	23
1.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개요	23
2. 생명보험	27
3. 손해보험	31
4. 보험권 퇴직연금	37
IV. 경영 및 정책 과제	38
1. 진단 및 과제 도출	38
2. 세부 과제	42

표 차례

〈표 I-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8
〈표 II-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12
〈표 II-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16
〈표 II-3〉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18
〈표 II-4〉 산업구조 변화와 일반손해보험	19
〈표 III-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28
〈표 III-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32
〈표 III-3〉 장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33
〈표 III-4〉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36

그림 차례

〈그림 I-1〉 OECD 주요국 경제성장률	3
〈그림 I-2〉 OECD 경기선행지수	3
〈그림 I-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4
〈그림 I-4〉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4
〈그림 I-5〉 국내 분기별 GDP 성장률	4
〈그림 I-6〉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4
〈그림 I-7〉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	5
〈그림 I-8〉 소비자 심리지수 및 물가상승률	5
〈그림 I-9〉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율	5
〈그림 I-10〉 국내 재화 수·출입 증가율	5
〈그림 I-11〉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추이	6
〈그림 I-12〉 주요 투자은행 금리전망	6
〈그림 I-13〉 주가지수 및 거래금액 추이	7
〈그림 I-14〉 주식시장 고객예탁금 및 신용잔고 추이	7
〈그림 I-15〉 원/달러 환율 추이	7
〈그림 I-16〉 해외 주요 투자은행 환율전망	7
〈그림 II-1〉 코로나19와 보험산업	9
〈그림 II-2〉 가계 금융상품 거래 증감	10
〈그림 II-3〉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10
〈그림 II-4〉 전국 교통량 및 증가율 추이	11
〈그림 II-5〉 의료 이용 카드 사용량 증가율 추이	11
〈그림 II-6〉 보험영업 손실 감소	11
〈그림 II-7〉 Apple 이동성 지표 추이	11
〈그림 II-8〉 보험수요 잠재적 영향	11
〈그림 II-9〉 저축보험 수입보험료	13
〈그림 II-10〉 예적금이율 및 공시기준이율 추이	13
〈그림 II-11〉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13
〈그림 II-12〉 주가지수와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13
〈그림 II-13〉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14
〈그림 II-14〉 종신 및 질병·건강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율	14

〈그림 II-15〉 생명보험 상품 집중도 변화(2010년 vs. 2020년)	15
〈그림 II-16〉 장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16
〈그림 II-17〉 장기 보장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증가율	16
〈그림 II-18〉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17
〈그림 II-19〉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17
〈그림 II-20〉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18
〈그림 II-21〉 일반손해보험 성장률과 전년도 GDP 성장률	19
〈그림 II-22〉 국내 8개 손해보험회사 종목별 비중 변화(2010년 vs. 2020년)	20
〈그림 II-2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20
〈그림 II-2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20
〈그림 II-25〉 보험산업 당기순이익	21
〈그림 II-26〉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21
〈그림 II-27〉 2021년 하반기 보험산업 예상	22
〈그림 III-1〉 보험료 전망 개요	23
〈그림 III-2〉 코로나19 월별 확진자 수 추이	24
〈그림 III-3〉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24
〈그림 III-4〉 2022년 수입보험료 전망	25
〈그림 III-5〉 보험료 증가율 전망	25
〈그림 III-6〉 보험료 규모 전망	25
〈그림 III-7〉 종목별 초회보험료 전망	26
〈그림 III-8〉 생명보험 위험보험료 추정 및 전망	27
〈그림 III-9〉 장기 손해보험 위험보험료 추정 및 전망	27
〈그림 III-10〉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전망	28
〈그림 III-1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규모 전망	28
〈그림 III-12〉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29
〈그림 III-13〉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30
〈그림 III-14〉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31
〈그림 III-15〉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전망	32
〈그림 III-16〉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규모 전망	32
〈그림 III-17〉 장기 질병·상해 원수보험료 전망	33

〈그림 III-18〉 장기 운전자·재물·통합 원수보험료 전망	34
〈그림 III-19〉 장기 저축성 원수보험료 전망	34
〈그림 III-20〉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35
〈그림 III-21〉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36
〈그림 III-22〉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	37
〈그림 III-23〉 사외적립비율 확대 및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	37
〈그림 IV-1〉 국내 가계 저축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38
〈그림 IV-2〉 보험료성장률 및 자산성장률 추이	39
〈그림 IV-3〉 국내 보험회사의 ROE 및 장기 보험 계약유지율 해외 비교(2019년)	40
〈그림 IV-4〉 소비자 관점에서 본 보험산업 환경	41
〈그림 IV-5〉 2022년 보험산업 도전과제	41

Insurance Industry Outlook and Agenda in 2022

The insurance industry has unexpectedly benefited since 2020 as the spread of Covid-19 led to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industry, such as low-interest rates, liquidity expansion, and restrictions on individual mobility. In terms of growth, the industry has grow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ue to the high growth of savings insurance, variable insurance, and auto insurance despite the deterioration of the face-to-face channel environment.

In 2022, insurance premium growth conditions are expected to improve as the economy returns to normal. Thanks to the acceleration of the COVID-19 vaccination, the “post-Covid-19” becomes feasible, and sales from face-to-face channels would be gradually promoted if social distancing rules ease. Also, the recovery of private demand will stimulate the demand for individual insurance, and there is a good chance that rising market interest rates will reduce the burden of long-term insurance premiums. However, the diminishment of the Covid-19 reflection effect will appear unfavorable in the insurance industry’s growth, and the demand for certain insurance products will be decreased as savings motives are weakened and liquidity growth slows.

Meanwhile, there exist uncertainties in the 2022 insurance industry outlook. First, the tensions over ending Covid-19, including the emergence of variants of the virus, remain despite the mounting vaccinations rates. Second, consumer sentiment is likely to worsen if the household debt that has soared in economic policy normalization makes a hard landing.

The gross written premium for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s expected to fall below the nominal economic growth rates, slowing down from 4.3% in 2021 to 1.7% in 2022. Protection insurance is likely to maintain growth due to the rising demand for disease and health insurance despite the fall of growth in whole life insurance. Also, savings insurance will grow mainly attributable to the re-entering subscriptions of savings insurance upon maturity even though the interest rate of savings type insurance will be less competitive than other financial industries. Variable savings insurance gross premiums are expected to decrease since renewable premiums continue to decline as the preference for direct investment rises. Insurance gross premiums for retirement pensions are projected to increase 2.2% year-on-year in 2022.

The gross written premium on non-life insurance is expected to increase 4.9% year-on-year, showing high growth in 2022. Long-term non-life insurance gross premiums are projected to rise 5.2% as disease, injury, and driver insurance grow rapidly. Among long-term insurance, disease and injury insurance are expected to increase by 8.3%. Still, the growth rate is likely to slow down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since the inflow of initial premiums will be reduced as competition between insurers to expand coverage eases. Long-term savings insurance is expected to decline significantly, 21.4% year-on-year. The trend is likely to continue because the portion of savings type insurance is shrinking in the non-life insurer's portfolio strategy focusing on protection type insurance. In 2022, non-life insurance retirement pension is projected to grow 8.0%.

The insurance industry should seek opportunities for sustainable growth away from low profitability and unstable relationships with insurance consumers. To this end, it should focus on establishing insurance market environments based on innovation and trust. In this regard, we present four significant tasks - market innovation, strengthening essential business capabilities, consumer trust, and ESG management - for the insurance industry in 2022. In challenging the four major tasks, the insurance industry is expected to expand its economic role in supporting the real economy and its social role in accumulating social trust capital.

요약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은 저금리 및 유동성 확대, 개인의 이동 및 활동 제약을 통해 보험산업에 예상 외의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성장성 측면에서는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저축보험, 변액보험, 자동차보험이 고성장하면서 성장성이 확대되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자산운용에 불리한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강보험 손해를 개선, 변액보험 준비금 부담 완화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2022년 보험산업은 경제 정상화에 따른 보험료 성장여건 개선이 예상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속화로 ‘포스트 코로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대면채널 영업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경제 정상화에 따른 민간수요 회복은 개인보험 수요를 확대할 수 있으며,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장기 보험의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반사효과 소멸은 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비적 저축 동기 약화, 유동성 증가세 둔화 등은 관련 보험상품 수요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2022년 전망에 있어 코로나19 종식 여부와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 등과 같은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코로나19의 종식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급격한 조정을 보이며 경착륙할 경우 소비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생명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2021년 4.3%에서 2022년 1.7%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명목경제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질병 및 건강보험 수요 확대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저축성보험의 상대적인 금리 경쟁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저축보험 만기 보험금 재유입 효과 등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변액저축성보험은 직접투자 선호로 인해 계속보험료 감소가 지속되면서 수입보험료가 감소할 전망이다. 2022년 생명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2% 증가가 전망된다. 생명보험은 2021년 DB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확대가 마무리되면서 2022년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전년 대비 4.9% 증가가 전망된다. 2022년 장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질병·상해·운전자보험의 고 성장이 계속되면서 전년 대비 5.2% 증가가 전망된다. 장기 보장성보험 중 질병·상해보험 은 8.3% 증가가 전망되나, 증가율은 이전에 비하여 둔화될 전망이다. 질병·상해보험의 보 장확대 경쟁이 완화되면서 초회보험료 유입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갱신보험료 증가에 의한 계속보험료 중심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장기 저축성보험은 전년 대비 21.4% 감 소하여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손해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저축성보험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2022년 손해보험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확대 를 위한 마케팅 강화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보험료 중심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 며, 8.0%의 성장이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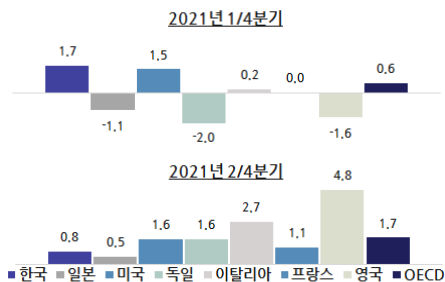
국내 보험산업은 구조화된 저수익성과 불안정한 소비자 관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 장기회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시장 혁신과 신뢰에 기초한 시장규율 정착 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시장 혁신, 본업역량 강화, 소비자 신뢰, ESG 경영을 2022년 보험산업의 4대 과제로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성장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4대 과제 도전 과정에서 보험산업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경제적 역할은 물론 사회적 신뢰자본을 축적 하는 사회적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1년 과제로 제시된 사업재조정과 경쟁적 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은 여전히 2022년에도 보험산업의 현안임을 강조한다.

1. 세계경제

○ 2021년 1/4분기와 2/4분기 OECD 경제규모는 각각 0.6%, 1.7%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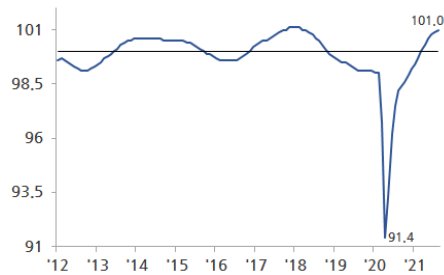
-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GDP 감소가 두드러졌던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국가 경제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회복세를 보임
-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3월 기준점인 100을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임

〈그림 I-1〉 OECD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전기 대비 성장률임
자료: OECD

〈그림 I-2〉 OECD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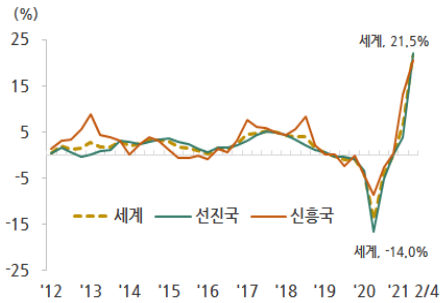


자료: OECD

○ 코로나 2021년 2/4분기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은 모두 전년 동기 감소분을 넘어서는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선진국의 무역규모 및 산업생산 증가가 두드러지는 모습임
- 세계 무역규모 회복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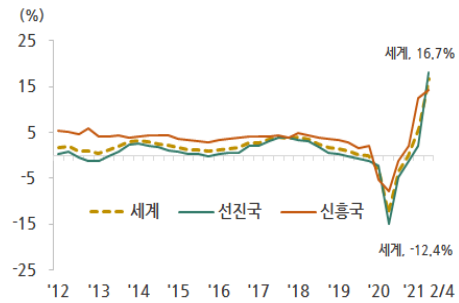
〈그림 I-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그림 I-4〉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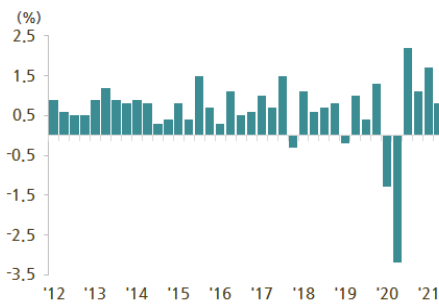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2. 국내경제

○ 우리나라 GDP는 2021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1.7%, 0.8% 증가하였고, 이는 선진국 중심의 무역규모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가 경기 회복을 견인한 영향임

- 향후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큰 폭 상회한 102.6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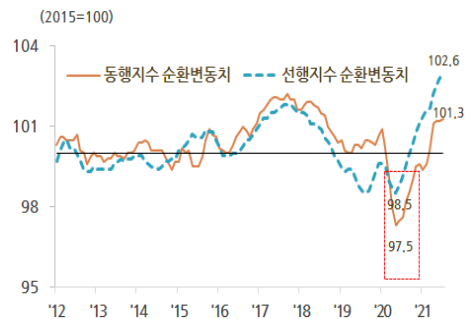
〈그림 I-5〉 국내 분기별 GDP 성장률



주: 전기 대비 성장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6〉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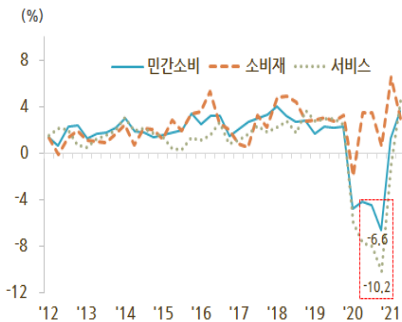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GDP 항목별로 살펴보면 1/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약한 회복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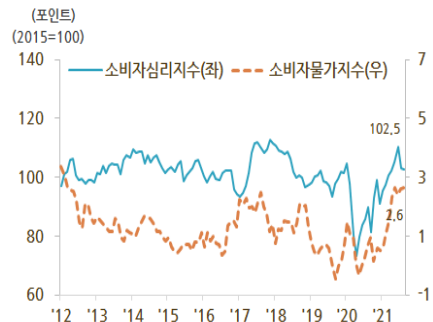
- 대면영업이 필요한 서비스업의 경우, 재화소비에 비해 회복세가 크지 않음
-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선이 100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2%대로 확대됨
- 설비투자는 2020년부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부진이 이어짐
- 2021년 상반기 수출입 물동량은 세계 교역량 확대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수출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그림 I-7〉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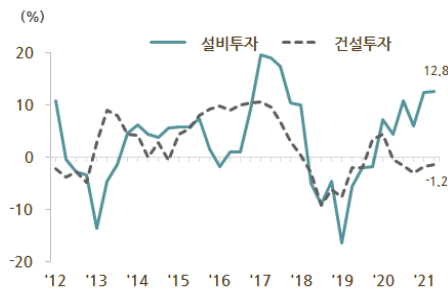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8〉 소비자 심리지수 및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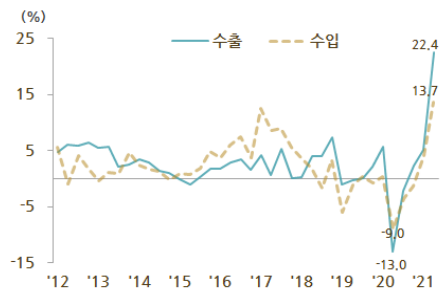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9〉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0〉 국내 재화 수·출입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3. 금융시장

가. 금리

○ 2021년 8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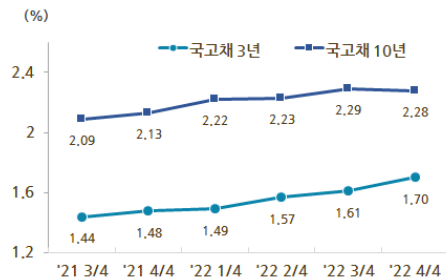
- 단기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전인 5월 이후 빠르게 상승하였고,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음
-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2년까지 우리나라 장단기 국고채 금리의 점진적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으며, 장기물 국고채 금리보다 단기물 국고채 금리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함

〈그림 I-11〉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추이



주: 2021년 9월 기준임
자료: Bloomberg

〈그림 I-12〉 주요 투자은행 금리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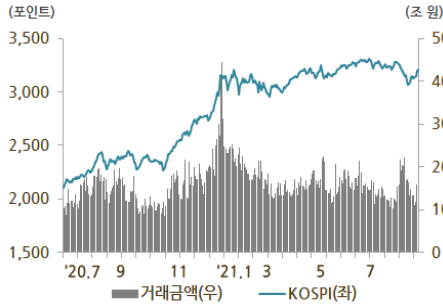
주: 투자은행 금리전망 가중평균값으로 전망시점은 2021년 8월 초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나. 주가 및 환율

○ 2021년 코스피 지수는 2021년 1월 3,000선을 돌파한 이후 횡보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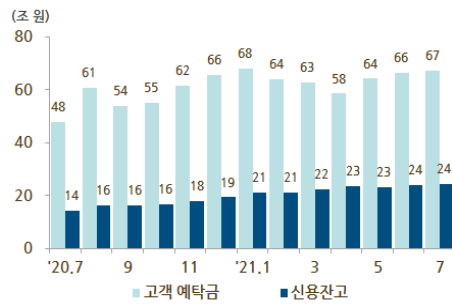
- 주식시장 고객예탁금 또한 2021년 1월 68조원을 돌파한 후, 7월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음
- 2021년 하반기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그널과 중국恒大그룹 디폴트 리스크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됨

〈그림 I-13〉 주가지수 및 거래금액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I-14〉 주식시장 고객예탁금 및 신용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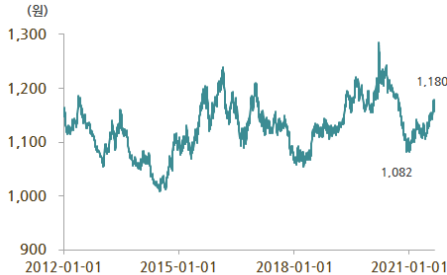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 원/달러 환율은 2021년 1월 1,100원을 하회하며 급락 후,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달러화 강세를 보이며 1,180원 수준까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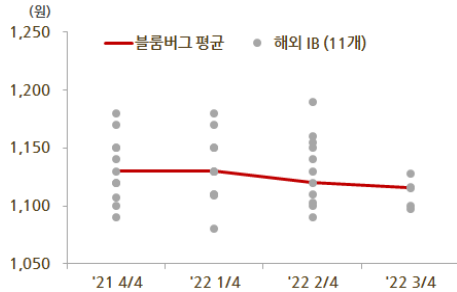
-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2년 원/달러 환율의 소폭 하락을 전망함

〈그림 I-15〉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I-16〉 해외 주요 투자은행 환율전망



주: 2021년 9월 기준임

자료: Bloomberg

4. 2022년 국내경제 전망

○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022년 우리나라 GDP가 3% 수준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개인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는 2022년 3~4% 수준의 회복이 전망됨
- 설비투자과 수출입은 2021년의 높은 증가세 후 기저효과로 인해 2022년에는 2~3%의 제한적 회복이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2022년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I-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9	2020	2021(F) ¹⁾		2022(F) ¹⁾	
			한국은행 ²⁾	KDI ³⁾	한국은행 ²⁾	KDI ³⁾
실질 GDP	2.0	-0.9	4.0	4.0	3.0	3.0
민간소비	1.7	-5.0	2.8	3.5	3.4	3.9
설비투자	-7.5	7.1	8.8	9.1	2.1	3.2
건설투자	-2.5	-0.4	0.9	-0.5	2.9	2.4
지식생산물 투자	3.0	4.0	4.4	4.0	3.8	3.3
상품수출	0.5	-0.5	8.9	8.5	2.7	2.6
상품수입	-0.8	-0.1	9.5	10.3	3.0	3.3
실업률	3.8	4.0	3.9	3.7	3.8	3.7
소비자물가	0.4	0.5	2.1	2.3	1.5	1.7
경상수지	600	753	820	912	700	651
상품수지	769	819	710	786	730	690
서비스·본원 이전소득수지	-169	-67	110	126	-30	-39

주: 1) 2021(F), 2022(F)는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1. 8),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1. 11), 『KDI 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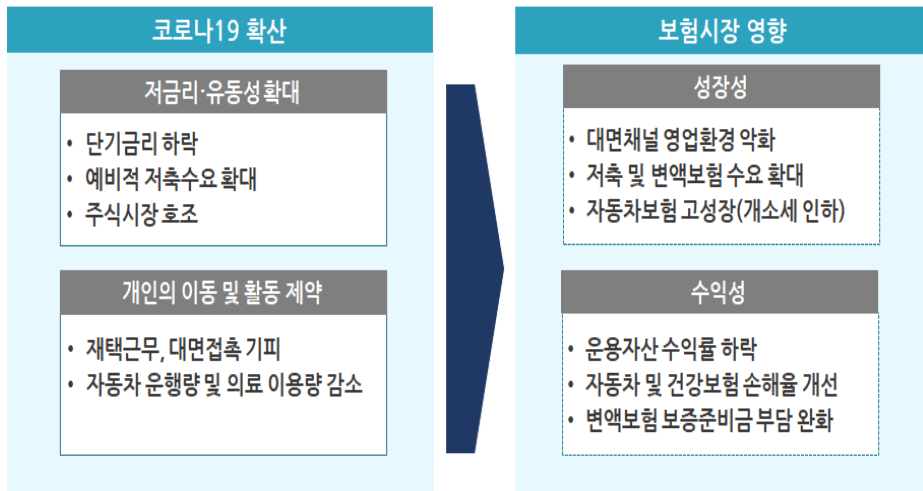
보험산업 주요 동향

1. 코로나19와 보험산업

가. 개요

-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은 저금리 및 유동성 확대, 개인의 이동 및 활동 제약을 통해 보험산업에 예상 외의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성장성 측면에서는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저축보험·변액보험·자동차보험이 고성장하면서 성장성이 확대됨
- 수익성 측면에서도 자산운용에 불리한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강보험 손해를 개선, 변액보험 준비금 부담 완화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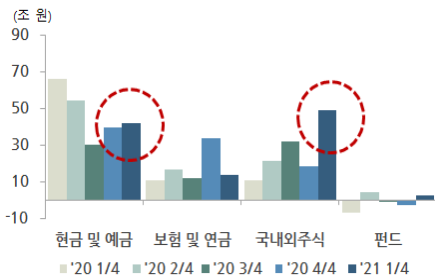
〈그림 Ⅱ-1〉 코로나19와 보험산업



나. 성장성 확대 요인

- 코로나19 이후 경기변동에 대응한 예비적 저축수요가 확대되고,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국내외주식 투자가 크게 증가함
 - 2020년 하반기에 현금 및 예금과 국내외주식 거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그림 II-2〉 참조)
-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면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가 크게 확대됨
 - 정부는 2020년 1~6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였으며, 이후 2020년 7~12월에는 30% 인하함
 - 개별소비세를 인하 등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2020년 2월 이후 상승세를 보임(〈그림 II-3〉 참조)

〈그림 II-2〉 가계 금융상품 거래 증감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3〉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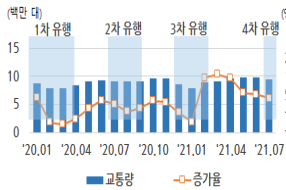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다. 수익성 개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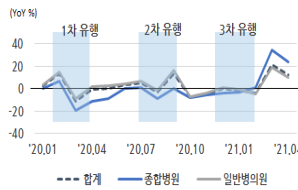
- 코로나19 반사이익 등으로 2021년 상반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험영업 손실은 크게 감소함(〈그림 II-6〉 참조)
 - 코로나19 유행 시기마다 교통량 및 의료 이용량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며, 이는 자동차 및 건강보험 손해율에 긍정적 영향을 줌
 - 다만,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교통량 및 의료 이용량 민감도는 점차 둔화됨

〈그림 II-4〉 전국 교통량 및
증가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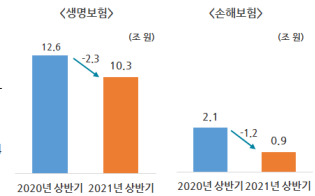
자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그림 II-5〉 의료 이용 카드
사용량 증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6〉 보험영업 손실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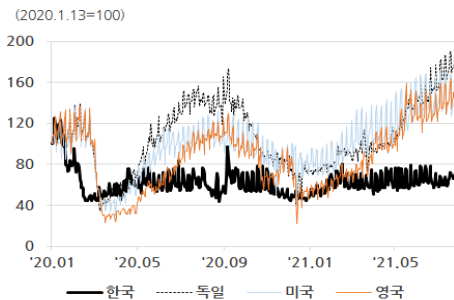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라. 영업환경과 보장 수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의 대면영업 환경은 악화되었으며, 개인의 위험보장수요에도 잠재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스마트폰 제조사 애플의 이동성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대면영업 환경 악화가 지속됨(〈그림 II-7〉 참조)
- 코로나19 경험으로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수 있고, 전염병 감염으로 인한 소득상실 보장 수요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해외사례에서 코로나19 이후 장수위험에 대한 인식의 약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투자형 노후소득상품 수요 확대도 예상됨

〈그림 II-7〉 Apple 이동성 지표 추이



주: Apple이 제공하는 이동성 지표 중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이용량을 단순 평균한 값임
자료: Apple, "Mobility Trends Reports"

〈그림 II-8〉 보험수요 잠재적 영향

건강보장

-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확대
- 전염병 감염으로 인한 소득상실 보장 수요 확대

노후소득보장

- 해외사례의 경우 장수에 대한 인식 약화
- 투자형 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

2. 생명보험 종목별 동향

가. 개요

- 2021년 상반기에는 2020년 고성장한 저축보험 성장세가 정체되기 시작한 반면, 변액보험이 고성장하면서 전체 생명보험 성장세가 유지됨
 - 저축보험이 2020년 2/4분기에서 4/4분기까지 20~30% 수준으로 고성장하면서 2020년 생명보험 전체 성장을 견인함
 - 2021년에는 저축보험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으나, 주식시장 호조에 따라 변액보험이 고성장하고 있음
 - 2021년 상반기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됨

〈표 II-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단위: %)

구분	'20 1/4	2/4	3/4	4/4	'20 1/4	2/4
보장성	4.8	3.6	4.2	4.3	3.2	2.5
저축	11.0	19.3	33.7	21.5	-0.1	1.1
연금	-7.3	4.0	1.0	1.7	12.7	-1.8
변액	-2.3	-11.3	-1.2	5.0	15.2	6.3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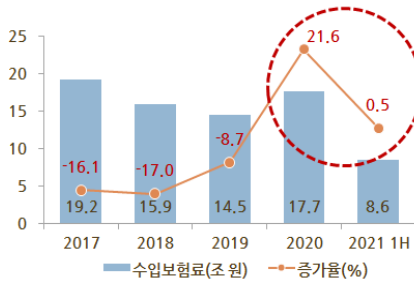
나. 저축보험¹⁾

- 저축보험은 2020년 21.6%의 고성장을 하였으며, 이후 2021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수준의 수입보험료가 유입됨
 - 시중금리는 2020년 2월 이후 1% 아래로 급격히 하락한 반면,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은 여전히 2%대를 유지하면서 예적금 금리 대비 저축보험의 금리 경쟁력이 부각되었음

1) 여기서 저축보험은 생사혼합보험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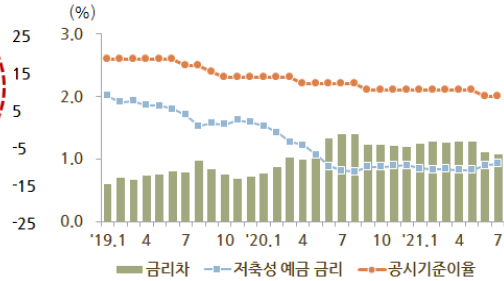
- 그러나 2021년 5월 이후, 기준금리 및 단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저축보험의 상대적 금리 경쟁력이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그림 II-9〉 저축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0〉 예적금이율 및 공시기준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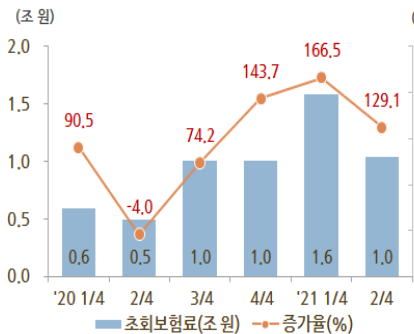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보험개발원

다. 변액보험

○ 2021년 상반기 변액보험 성장세가 저축보험 성장세 둔화를 상쇄하며 전체 생명보험 성장에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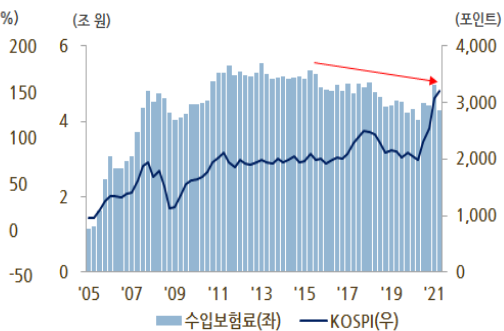
-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2020년 3/4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 1/4분기 KOSPI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후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크게 증가함
- KOSPI 지수가 정체된 2/4분기에는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

〈그림 II-11〉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2〉 주가지수와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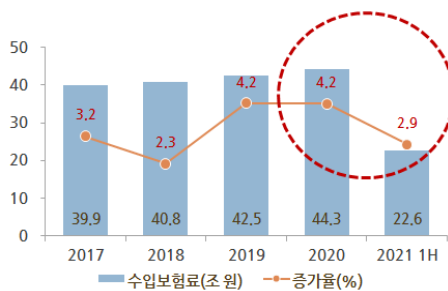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보장성보험²⁾

○ 2021년 상반기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위축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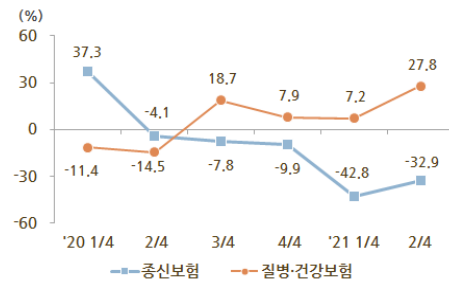
- 2020년 보장성보험은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 신상품 개발 및 절판 마케팅 효과³⁾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
- 2021년 상반기 종신보험은 신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 설계사 수수료 규제⁴⁾ 등으로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함
- 한편, 최근 질병 및 건강보험 초회보험료 성장이 종신보험 부진을 일정부분 대체하고 있음

〈그림 II-13〉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4〉 종신 및 질병·건강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마. 회사별 개인보험 포트폴리오 변화

○ 지난 10년간 생명보험회사의 저축보험을 제외한 개인보험 포트폴리오는 일부 종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종신·건강·연금·변액보험 중 종신 또는 건강보험에 집중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일부 변액보험에 집중도 확대됨

2) 해당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등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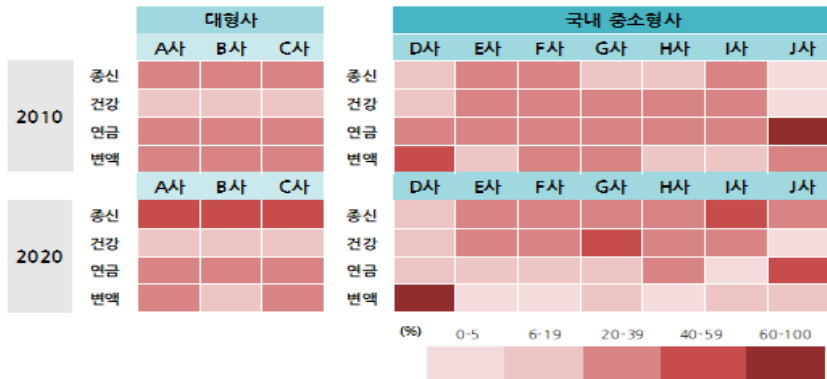
3) 저해지·무해지 상품의 판매규제를 앞두고 해당 상품의 가입 수요가 확대되는 효과임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 8. 2),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2010년과 2020년 국내 10개 보험회사의 상품별 집중도 변화에서 2010년에 비해 2020년에 집중도가 60% 이상인 짙은 색과 집중도가 5% 미만인 옅은 색이 증가함(〈그림 II-15〉 참조)

- 회사별 개인보험 상품전략 차별화는 개별회사 성장성과 수익성 분산이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함

〈그림 II-15〉 생명보험 상품 집중도 변화(2010년 vs. 2020년)



주: 저축보험 제외,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점유율 상위 10개 국내 생명보험회사 대상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종목별 동향

가. 개요

○ 2021년 상반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손해보험이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반손해보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최근 장기 손해보험은 여전히 분기 기준 6%대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전에 비해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됨
- 자동차보험은 2020년 매 분기 10%대의 고성장세를 보인 후, 2021년 상반기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
- 한편, 일반손해보험은 2020년 이후 높은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과거 장기 보장성보험 중심의 성장세가 소폭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다변화되는 조짐을 보임

〈표 II-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단위: %)

증가율	'20 1/4	2/4	3/4	4/4	'20 1/4	2/4
장기 보장	8.5	7.2	6.4	6.3	6.0	6.7
장기 저축	-17.2	-18.0	-13.8	-9.1	-9.0	-17.7
자동차	9.6	13.4	13.8	9.8	6.3	3.8
일반손해	16.6	6.7	7.4	2.5	8.5	10.3

주: 장기 저축에는 개인연금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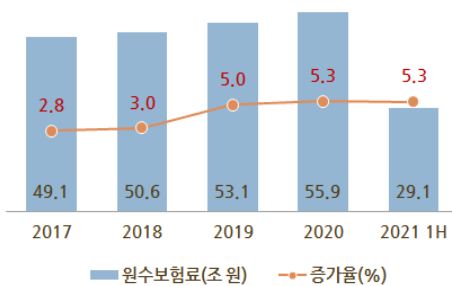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장기 손해보험

○ 2021년 상반기 장기 손해보험은 5.3% 성장하면서 2019년 이후 5%대 성장을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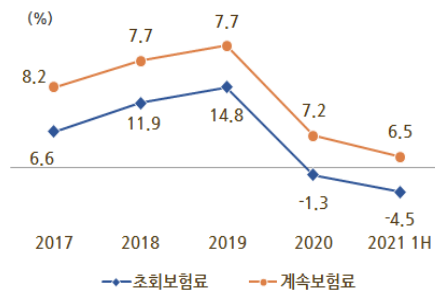
- 2021년 상반기 장기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4.5% 감소함
- 장기 보장성보험은 초회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갱신보험료 위주의 계속보험료 중심으로 성장함
- 다만, 2019년 이후 계속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남

〈그림 II-16〉 장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7〉 장기 보장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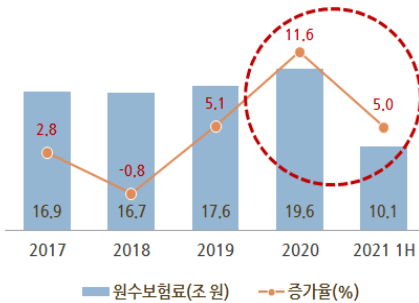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자동차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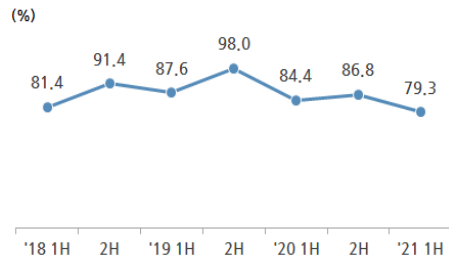
- 2021년 상반기에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추세는 유지되고 있음
 - 2020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0년 2월 보험료 인상 및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에 의한 것임
 - 2021년 상반기에는 보험료 인상효과가 소멸되고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도 둔화되면서 5.0% 성장에 그침
 - 한편, 2021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교통량 감소 효과로 79.3%까지 개선되는 모습임

〈그림 II-18〉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9〉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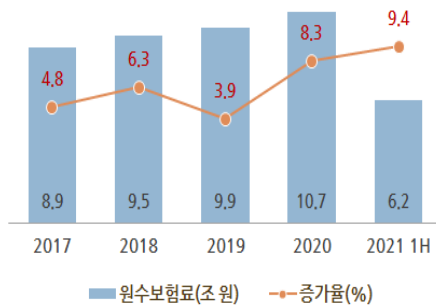


주: 손해율은 경과손해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일반손해보험

- 2021년 상반기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특종보험 고성장으로 9.4%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
 - 2020년에도 일반손해보험은 해상보험과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8.3%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음
 - 화재보험은 주택화재보험 수요 확대로 고성장하고 있으며, 특종보험은 배상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시장 확대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

〈그림 II-20〉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II-3〉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단위: %)

증가율	'20 2/4	3/4	4/4	'21 1/4	2/4
화재	-1.4	1.3	5.7	10.8	18.3
해상	25.4	5.5	-6.0	-8.9	-4.4
보증	-3.4	6.3	11.2	2.4	6.0
특종	8.1	8.1	0.6	11.5	12.6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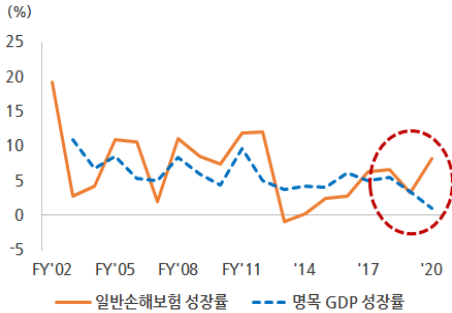
○ 향후 일반손해보험이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성장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일반손해보험은 대부분 기업성 보험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체로 명목 GDP 성장률에 1년 후행하는 모습을 보였음(〈그림 II-21〉 참조)
- 그러나 2019년과 2020년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일반손해보험은 이례적으로 고성장하고 있음

○ 최근 일반손해보험의 고성장은 신규위험에 대한 담보 확대로 일반손해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새로운 보장영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인공위성보험, 배상책임보험, 휴대폰 보증보험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보장 영역이 부상함
- 또한, 키보드, 드론과 같은 뉴모빌리티의 등장과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관련 의무보험도 도입되고 있음
- 한편, 4차 산업 부각에 따른 신규 리스크 보장 확대, 리스크 관리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모형의 등장도 예상됨

〈그림 II-21〉 일반손해보험 성장률과 전년도 GDP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II-4〉 산업구조 변화와 일반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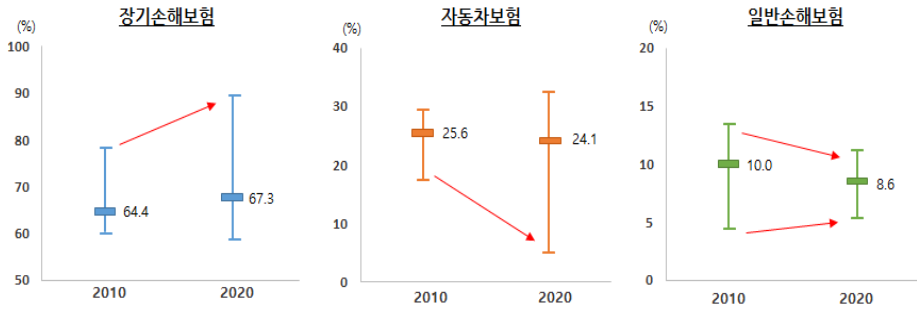
- 인공위성보험, 배상책임보험, 휴대폰 보증보험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보장 영역 부상
- 킥보드, 드론과 같은 뉴모빌리티의 등장과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관련 의무보험 도입
- 4차 산업 부각에 따른 신규 리스크 보장 확대, 리스크 관리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모형 등장 예상

마. 회사별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

○ 손해보험회사들의 상품 포트폴리오 전략 변화를 감안할 때, 장기 손해보험의 성장세 변화에는 회사별 온도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세 확대가 예상되는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은 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2010년에는 국내 8개 보험회사가 유사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였으나, 2020년에는 장기 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전략 차이가 두드러짐
 - 장기 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10년간 평균적인 비중은 상승하였고, 상품 비중이 90% 수준으로 포트폴리오가 집중된 회사들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음
 - 반대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적인 비중은 하락하였고, 상품 비중을 10% 미만으로 축소한 회사가 등장함
- 한편,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회사 간 비중 차이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모습임

〈그림 II-22〉 국내 8개 손해보험회사 종목별 비중 변화(2010년 vs.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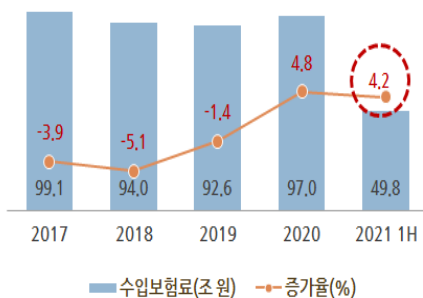
주: 장기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점유율 상위 8개 국내 손해보험회사 대상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2021년 상반기 성장성 및 수익성

○ 코로나19로 인한 보험산업의 보험료 성장성 확대 효과가 2021년 상반기까지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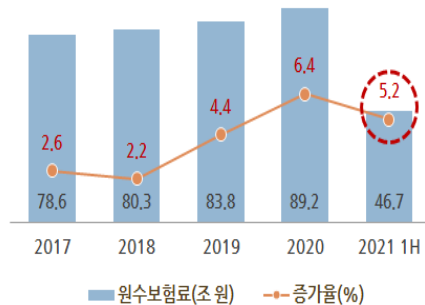
- 2021년 상반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각각 4.2%, 5.2% 성장하면서 2020년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감
- 다만, 손해보험의 경우 2020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 II-2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2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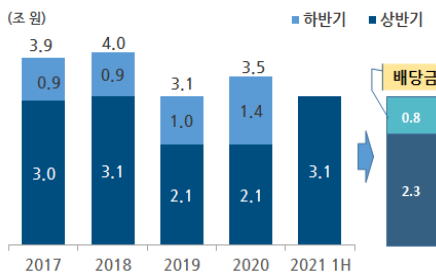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상반기 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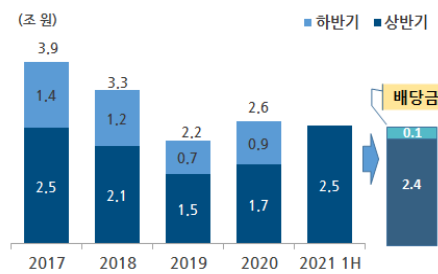
- 단, 상반기 보험산업 당기순이익 급증에는 일부 보험회사의 일시적 특별배당금 수령 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특별배당금 효과를 제외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각각 13.1%, 39.3% 증가함
- 특별배당금 이외에 자동차 및 건강보험 손해율 개선과 변액보험 준비금 부담 감소가 당기순이익 개선을 견인함

〈그림 II-25〉 보험산업 당기순이익



주: 배당금은 2021년 초 지급된 특별배당금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II-26〉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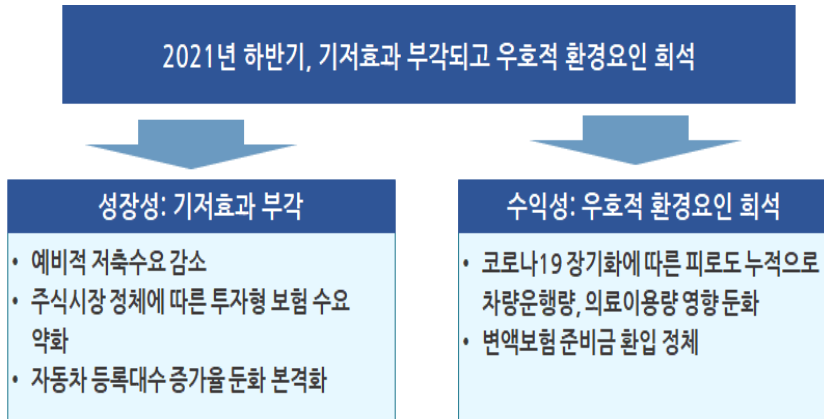


주: 배당금은 2021년 초 지급된 특별배당금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5. 2021년 하반기 예상

- 2021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반사효과가 지속되면서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됨
- 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반사효과가 점차 소멸하면서, 기저효과가 부각되고 보험산업의 우호적 환경요인도 희석될 것으로 예상됨
- 성장성 측면에서는 저축보험이 기저효과로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자동차보험 및 투자형 보험의 성장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수익성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누적으로 손해율 개선 효과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27〉 2021년 하반기 보험산업 예상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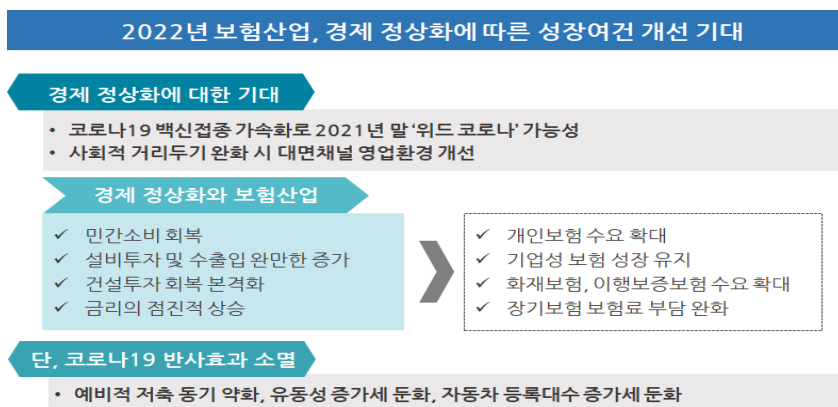
2022년 보험산업 전망

1.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개요

가. 개요

- 2022년 보험산업은 경제 정상화에 따른 보험료 성장여건 개선이 예상됨
 -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속화로 2021년 말 ‘위드 코로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대면채널 영업환경 개선이 기대됨
 - 경제 정상화에 따른 민간수요 회복은 개인보험 수요를 확대할 수 있으며, 설비투자 및 수출입의 완만한 증가로 기업성 보험의 성장세 유지가 예상됨
 - 건설투자 회복의 본격화는 화재보험, 이행보증보험 등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으며,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장기 보험의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됨
- 그러나 코로나19 반사효과 소멸은 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예비적 저축 동기 약화, 유동성 증가세 둔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등은 관련 보험상품 수요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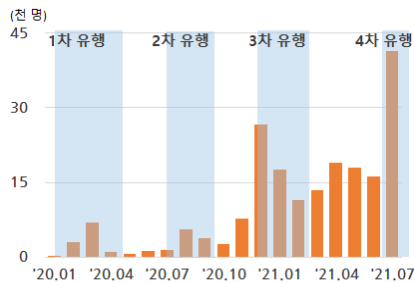
〈그림 Ⅲ-1〉 보험료 전망 개요



○ 2022년 전망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종식 여부와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 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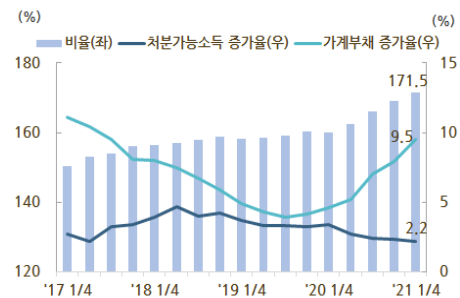
-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코로나19의 종식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임(〈그림 III-2〉 참조)
-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가 급격한 조정을 보이며 경착륙 할 경우 소비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처분가능소득 증가에 비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부채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그림 III-3〉 참조)

〈그림 III-2〉 코로나19 월별 확진자 수 추이



자료: 질병관리청

〈그림 III-3〉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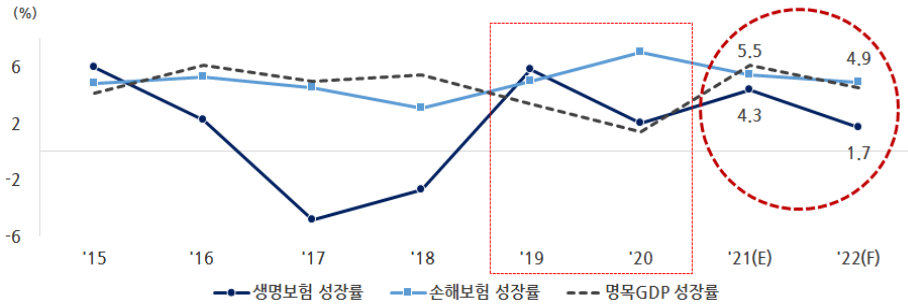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나. 전체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 2021~2022년 보험산업은 2020년 이례적인 성장세에서 벗어나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

-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명목경제 성장률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그러나 2020년 보험산업의 이례적인 보험료 성장세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이 커 보이며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구체적으로, 2022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명목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이 전망되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전망됨

〈그림 III-4〉 2022년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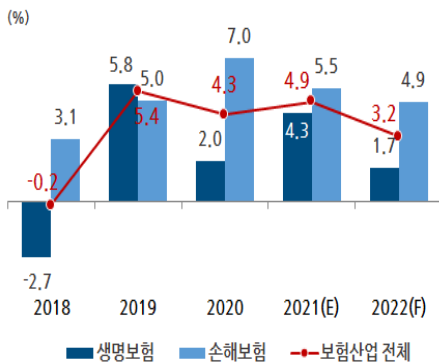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2년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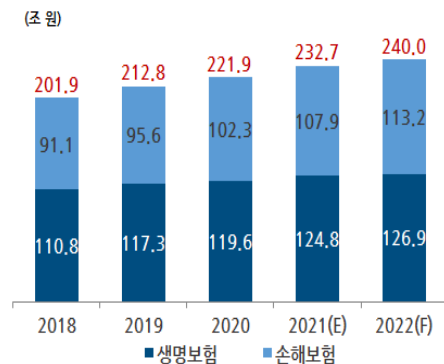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21년 4.3%에서 2022년 1.7%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21년 5.5%에서 2022년 4.9%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2022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규모는 240조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그림 III-5〉 보험료 증가율 전망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6〉 보험료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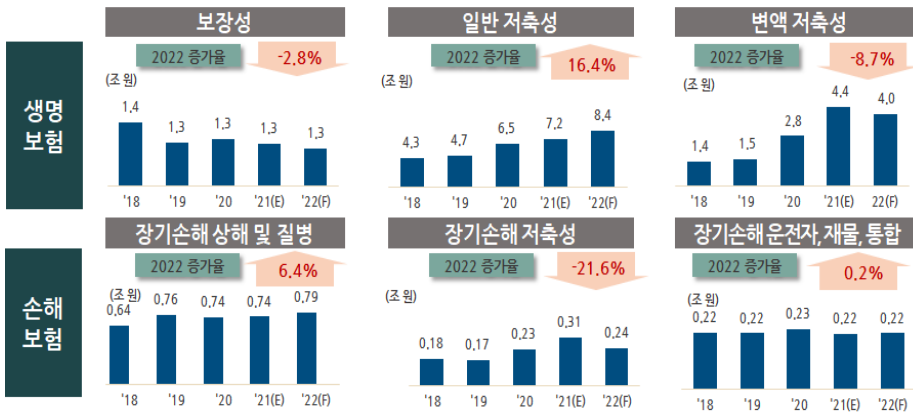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 생명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증가할 전망이다
 -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종신보험 수요 약화로 완만한 감소세가 전망됨
 - 일반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2012년 급증한 일시납 보험의 만기도래 후 재가입 수요로 증가가 전망됨
 -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021년 신규가입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가 전망되나 투자 수요 확대로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손해보험의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건강보장 수요 확대로 소폭 증가가 예상됨

〈그림 III-7〉 종목별 초회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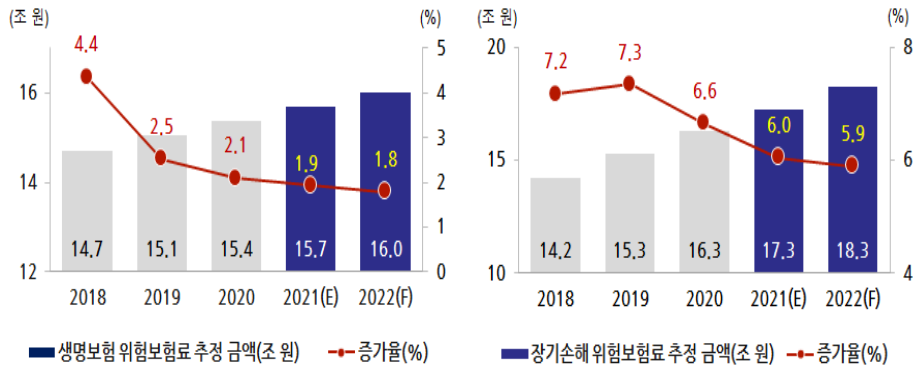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보험산업 위험보험료

- 2023년 IFRS17 도입 시 보험회사의 주요매출은 수입보험료가 아닌 위험보험료로 인식되기 때문에 과거 위험보험료 성장성을 토대로 한 2022년 위험보험료 전망을 시행함
- 위험보험료 기준으로 추정한 2022년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보험의 성장률은 각각 1.8%, 5.9%로 수입(원수)보험료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위험보험료 비중이 높은 보장성보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그러나 2018년 이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위험보험료 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음

〈그림 III-8〉 생명보험 위험보험료 추정 및 전망 〈그림 III-9〉 장기 손해보험 위험보험료 추정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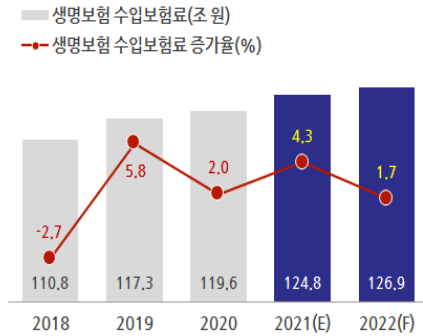


2. 생명보험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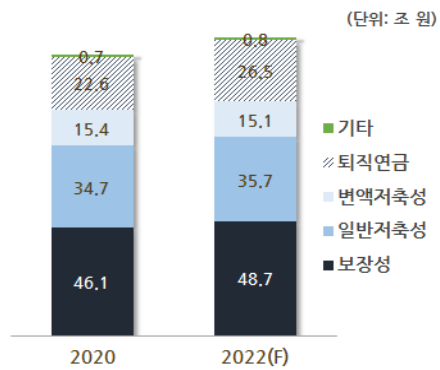
- 2022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질병·건강보험 성장, 저축보험 만기 보험금 재유입 등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할 전망임
 -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성장둔화 불구하고 질병 및 건강보험 수요 확대에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저축성보험은 상대적인 금리 경쟁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저축보험 만기 보험금 재유입 효과 등으로 성장이 예상됨
 - 변액저축성보험은 직접투자 선호로 인해 계속보험료 감소가 지속되면서 수입보험료가 감소할 전망임

〈그림 Ⅲ-10〉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전망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Ⅲ-1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규모 전망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Ⅲ-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9		2020		2021(E) ¹⁾		2022(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전체 (퇴직연금 제외)	92.6	-1.4	97.0	4.8	98.8	1.8	100.4	1.5
보장성보험 ²⁾	44.4	3.9	46.1	3.8	47.4	2.8	48.7	2.7
저축성보험 ³⁾	47.4	-6.0	50.1	5.8	50.6	1.0	50.9	0.4
일반저축성	31.6	-5.7	34.7	9.8	34.8	0.1	35.7	2.8
변액저축성	15.8	-6.5	15.4	-2.3	15.9	3.1	15.1	-4.7
기타 ⁴⁾	0.8	0.6	0.7	-2.1	0.8	0.7	0.8	0.4
퇴직연금	24.6	46.0	22.6	-8.5	26.0	15.1	26.5	2.2
생명보험 전체 (퇴직연금 포함)	117.3	5.8	119.6	2.0	124.8	4.3	126.9	1.7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을 포함함

3) 저축성보험에는 일반저축성(생존보험·생사혼합보험)과 변액저축성(변액연금·변액유니버설)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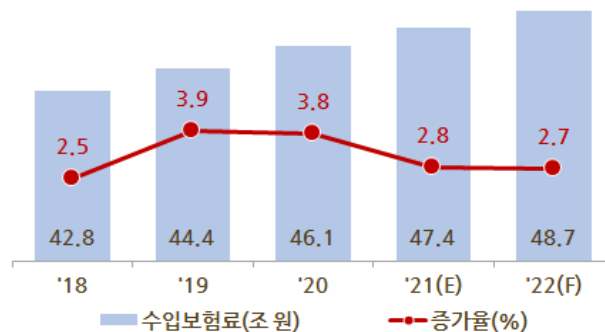
4)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을 포함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보장성보험⁵⁾

- 보장성보험은 경제 정상화에 따른 수요 회복이 예상되나 종신보험 신상품 개발 위축으로 종신보험 성장성이 약화되면서 질병·건강보험 중심의 2.7% 성장이 전망됨
 - 경제 정상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대면채널 영업환경 개선은 보장성보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IFRS17과 K-ICS 시행을 앞두고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보장성보험 확대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종신보험 신상품 개발 위축으로 종신보험 성장성이 약화되면서 질병·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될 것임

〈그림 III-12〉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일반저축성보험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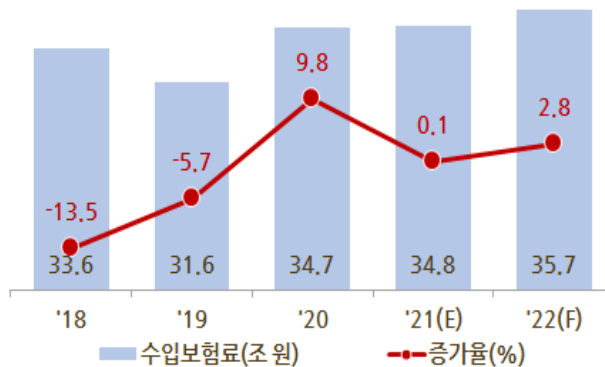
- 일반저축성보험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상대적인 금리 경쟁력은 약화되겠으나, 2012년 급증했던 일시납 보험료의 만기 후 재가입 효과로 2.8% 증가가 전망됨
 - 시중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저축성보험의 상대적인 금리 경쟁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5)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CI·건강보험·변액종신보험을 포함함

6) 일반저축성보험은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을 포함함

- 그러나 기존에 판매된 저축보험 만기 보험금 중 일부가 재유입되어 저축성보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7월 저축성보험의 세제요건이 강화되면서 2012년 일반저축성보험 수입 보험료는 전년에 비하여 25.6조 원 증가하여 85.0% 성장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유지되고 있는 대부분 계약이 2022년에 10년 만기가 도래함
- 한편, 연금보험의 경우 IRP와 같은 투자형 상품과의 경쟁심화로 지속적인 위축이 전망됨

〈그림 III-13〉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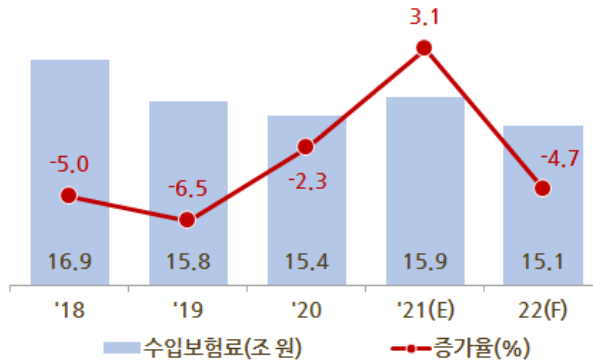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변액저축성보험⁷⁾

- 변액저축성보험은 투자상품 선호 확대로 신규 판매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계약의 유출로 인해 전년 대비 4.7% 감소가 전망됨
 -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투자상품에 대한 인식 개선은 투자형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확대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기존 계약의 이탈은 지속되고 있으며, 변액보험의 주식시장 민감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7) 변액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을 포함함

〈그림 III-14〉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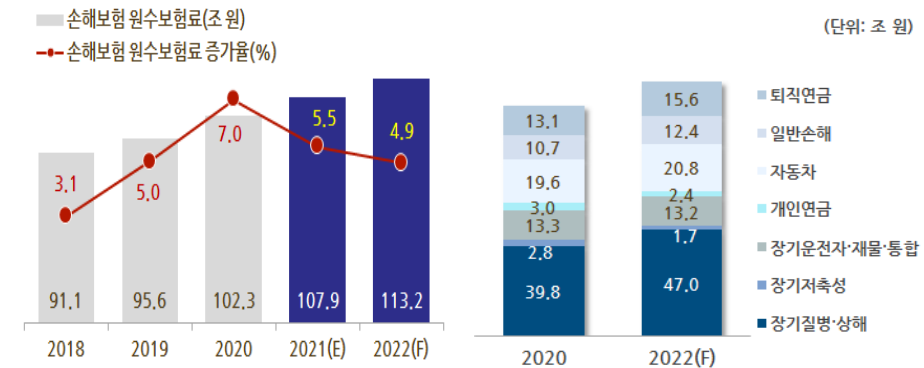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개요

- 2022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전년 대비 4.9% 증가가 전망됨
 - 장기 손해보험은 질병 및 상해보험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5%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은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소멸과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채널 확대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전망됨
 - 일반손해보험은 책임보험시장 확대와 신규 리스크 담보 확대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III-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구분	2019		2020		2021(E) ¹⁾		2022(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손해보험 전체 (퇴직연금 제외 시)	83.8	4.4	89.2	6.4	93.4	4.7	97.5	4.4
장기 손해보험	53.1	5.0	55.9	5.3	58.9	5.3	61.9	5.2
개인연금	3.3	-6.4	3.0	-9.1	2.6	-11.6	2.4	-9.5
자동차보험	17.6	5.1	19.6	11.6	20.4	4.0	20.8	2.1
일반손해보험	9.9	3.9	10.7	8.3	11.5	7.9	12.4	7.5
퇴직연금	11.8	9.3	13.1	11.4	14.5	10.4	15.6	8.0
손해보험 전체 (퇴직연금 포함 시)	95.6	5.0	102.3	7.0	107.9	5.5	113.2	4.9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장기 손해보험

- 2022년 장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질병·상해·운전자보험의 고성장이 계속되면서 전년 대비 5.2% 증가가 전망됨

〈표 Ⅲ-3〉 장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9		2020		2021(E) ¹⁾		2022(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 손해보험	53.1	5.0	55.9	5.3	58.9	5.3	61.9	5.2
질병 및 상해보험	36.2	10.9	39.8	10.1	43.4	9.0	47.0	8.3
저축성보험	3.4	-23.7	2.8	-20.0	2.2	-20.5	1.7	-21.4
운전자·재물 등	13.5	0.3	13.3	-1.0	13.2	-0.7	13.2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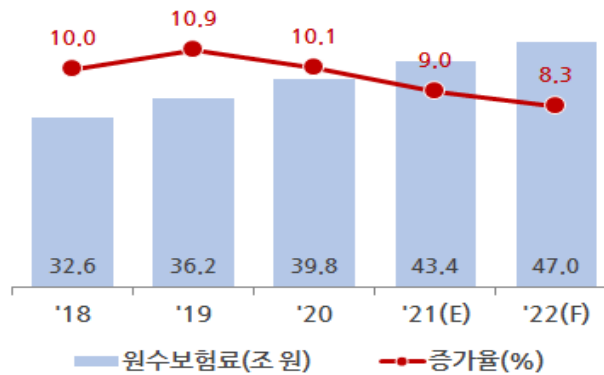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장기 보장성보험 중 질병·상해보험은 8.3% 증가가 전망되나, 증가율은 이전에 비하여 둔화될 것임

- 질병·상해보험은 보장 확대 경쟁이 완화되면서 초회보험료 유입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갱신보험료 증가에 의한 계속보험료 중심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됨

〈그림 Ⅲ-17〉 장기 질병·상해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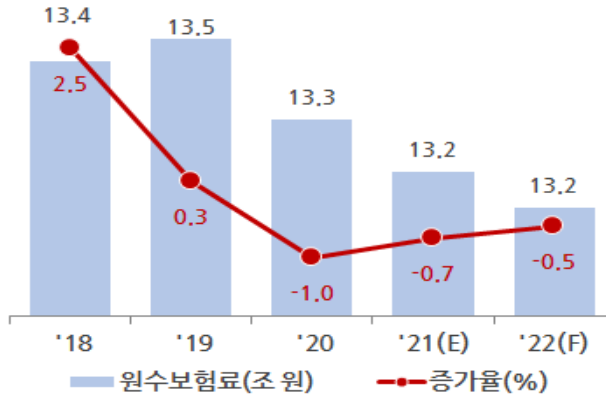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장기 보장성보험 중 운전자·재물·통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배상책임 강화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재물보험과 통합보험은 신규 판매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Ⅲ-18〉 장기 운전자·재물·통합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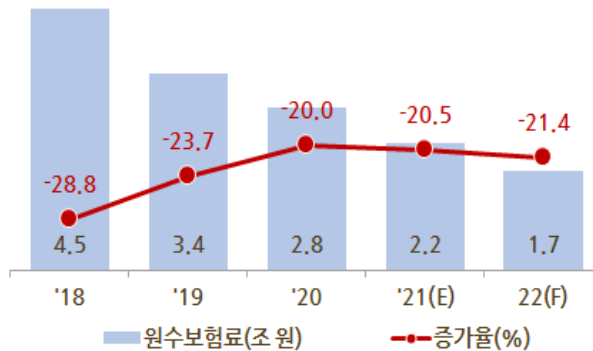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장기 저축성보험은 전년 대비 21.4% 감소하여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손해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저축성보험 규모는 감소하고 있음

〈그림 Ⅲ-19〉 장기 저축성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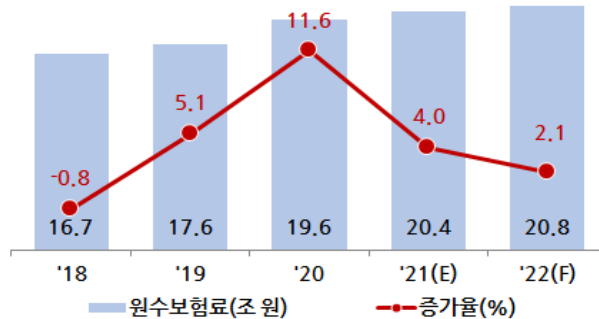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와 온라인 채널 확대 등으로 2.1%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2020년 2월 보험료 인상 효과는 2021년부터 소멸되고 있으며, 현재 2022년 보험료 조정의 가능성은 낮은 상황임
- 한시적으로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도 둔화될 전망이다
-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채널 및 운행거리 연동 보험 확대 등으로 인해 대당 보험료 증가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그림 III-20〉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일반손해보험

○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7.5%의 양호한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 화재보험은 주택 화재보험의 수요 증가로 인해 2.3% 증가가 예상됨
- 해상보험은 수·출입 물동량 확대와 조선수주 증가 등으로 0.2% 증가가 전망됨
- 보증보험은 건설투자 회복과 신용 관련 보증 수요 확대에 3.2% 성장이 예상되나 증가세는 이전에 비하여 둔화될 것임

- 특종보험은 책임보험시장 확대와 농산물재해보험, 종합보험, 기타특종 등의 신규 담보 확대에 9.4%의 고성장 예상됨

〈표 III-4〉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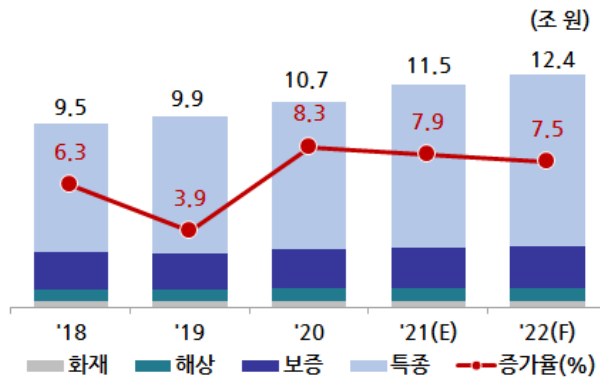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구분	2019		2020		2021(E) ¹⁾		2022(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일반손해보험	9.9	3.9	10.7	8.3	11.5	7.9	12.4	7.5
화재	0.3	-1.2	0.3	1.6	0.3	9.5	0.3	2.3
해상	0.6	0.8	0.7	17.4	0.7	-3.1	0.7	0.2
보증	1.9	-1.0	2.0	5.0	2.1	3.8	2.2	3.2
특종	7.0	5.9	7.7	8.7	8.4	9.9	9.2	9.4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21〉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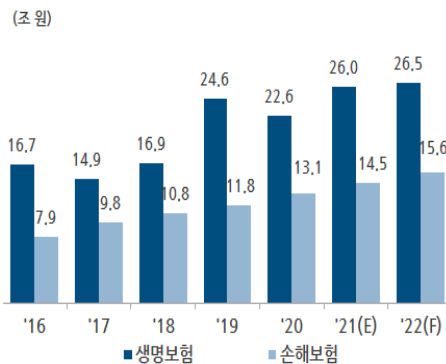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보험권 퇴직연금

○ 2022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이 2.2%(26.5조 원), 손해보험이 8.0% (15.6조 원)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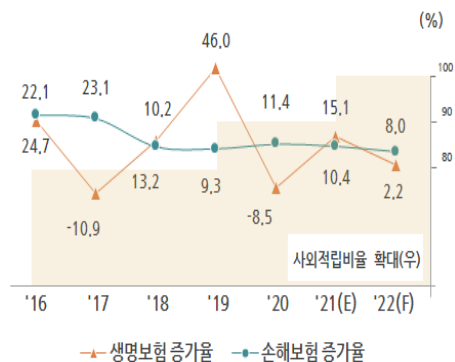
- 생명보험은 2021년 DB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확대가 마무리⁸⁾되면서 2022년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손해보험은 퇴직연금 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보험료 중심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특히, IRP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에 대한 요구자본 부담, 경기 둔화에 따른 신규고용 감소 및 임금상승률 둔화, 금융업권 간 경쟁 확대 등과 같은 보험료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들도 존재함
- 한편, 퇴직연금은 대부분 보험료가 12월 일시적으로 유입되므로 전망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I-22〉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23〉 사외적립비율 확대 및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금융감독원

8) DB형 퇴직연금의 사외적립비율은 단계적으로 조정되었으며, 2021년 말 100%로 확대됨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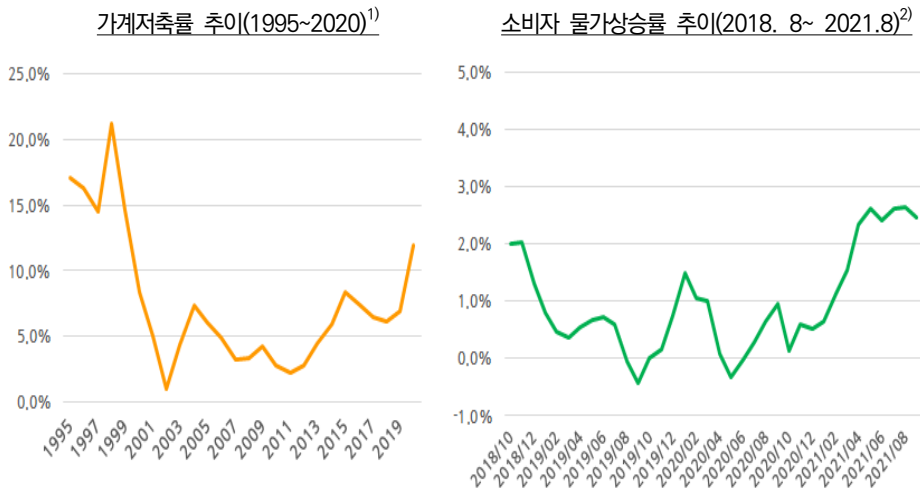
경영 및 정책 과제

1. 진단 및 과제 도출

○ 코로나19 이후 건강민감도, 가계 저축률, 물가 상승 현상이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관찰되고 있음(IMF 2021)⁹⁾

- 코로나 확산 이후 사람들의 건강민감도가 높아진 가운데 주택투자과 더불어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가계의 저축도 증가해 온(김형석·성현구·박범기 2018)¹⁰⁾ 한편,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현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그림 IV-1〉 국내 가계 저축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주: 1) 국민계정 가계순저축률임

2)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9) IMF(2021), "World Economic Outlook: Recovery During A Pandemic"

10) 김형석·성현구·박범기(2018), 「최근 가계 저축률 상승 원인 및 시사점」, 『조사통계월보』, 3월호, 한국은행

○ 이에 따라 건강보험과 저축성보험이 2022년 보험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가와 금리의 상승이 보험시장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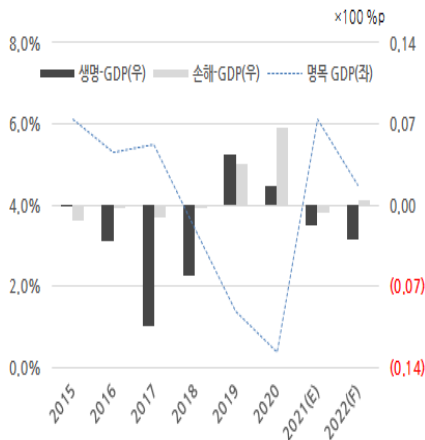
- 물가 상승은 사업비와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금 원가 상승 압력을 높일 것이나, 이런 변화가 보험료 조정에 반영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상황임
- 한편, 금리 상승은 보험산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가계 저축률도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축성보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코로나19 반사효과 이후 보험료성장률은 GDP 성장률을 밑도는 구간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산성장률은 손해보험에서 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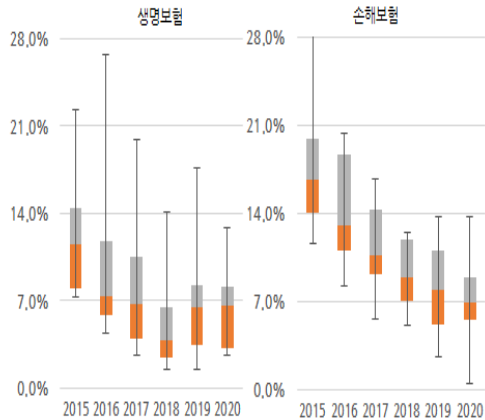
- 향후 생명보험의 보험료성장률은 경제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됨
- 보험회사별 자산성장률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손해보험의 하락 추이가 두드러짐

〈그림 IV-2〉 보험료성장률 및 자산성장률 추이

경제성장률 및 보험료성장률과의 격차 추이¹⁾



보험회사별 자산성장률 추이²⁾



주: 1) 성장률 격차=보험료성장률-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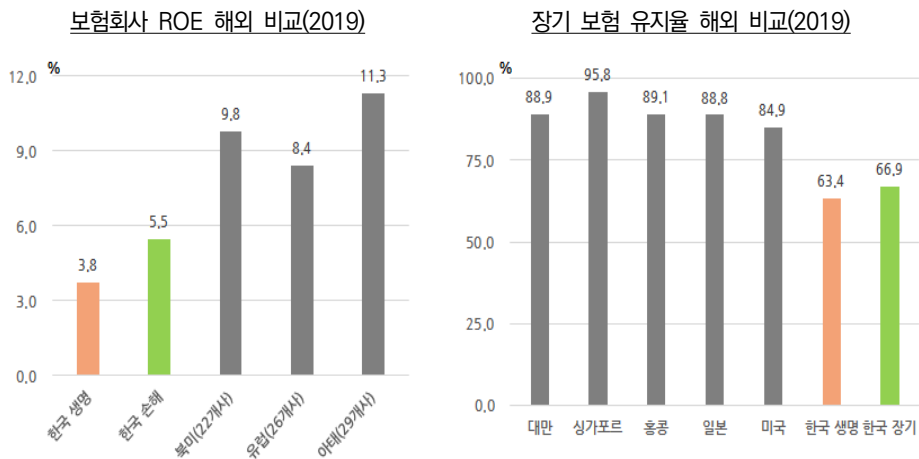
2) 자산성장률 상자 상단, 중앙, 하단은 각각 75, 50, 25분위 수, 최상단과 최하단은 각각 90, 10분위 수이며, 손해보험은 장기 보험 취급 회사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지표의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음

- 국내 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ROE)은 해외 보험회사와 비교할 때, 2019년 기준으로 해외 보험회사 ROE의 45~66% 수준에 불과함
- 또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장기 보험이 주력 상품을 구성하고 있으나, 2년 경과 시점의 계약유지율 역시 해외 보험회사 유지율의 75% 수준에 그치고 있음

〈그림 IV-3〉 국내 보험회사의 ROE 및 장기 보험 계약유지율 해외 비교(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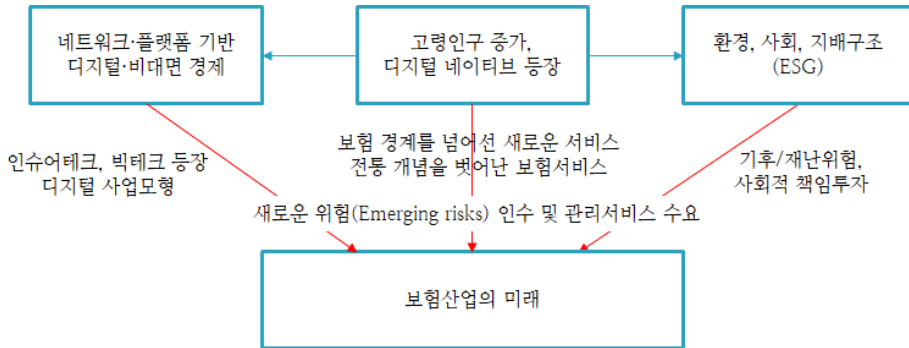
주: 1) (국내) 산업 평균 ROE, (해외) ROE 중위값, 생·손보 겸영보험회사를 포함함
2) 25회차 유지율임

자료: Swiss Re(2020), "Sigma", 4/2020; 김동겸(2021), 보험연구원 내부 자료

○ 저금리와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불균형 개선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소비자층의 등장은 보험산업이 사업 재조정과 디지털 전환에 더욱 주력해야 하는 중요한 변화임

- 디지털에 능숙한 MZ세대와 고령층에 진입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 소비자들은 전통 개념을 벗어나거나 보험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음
- 인슈어테크와 디지털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는 빅테크의 등장은 보험회사가 사업모형의 디지털 전환을 압박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새로운 위험의 인수와 관리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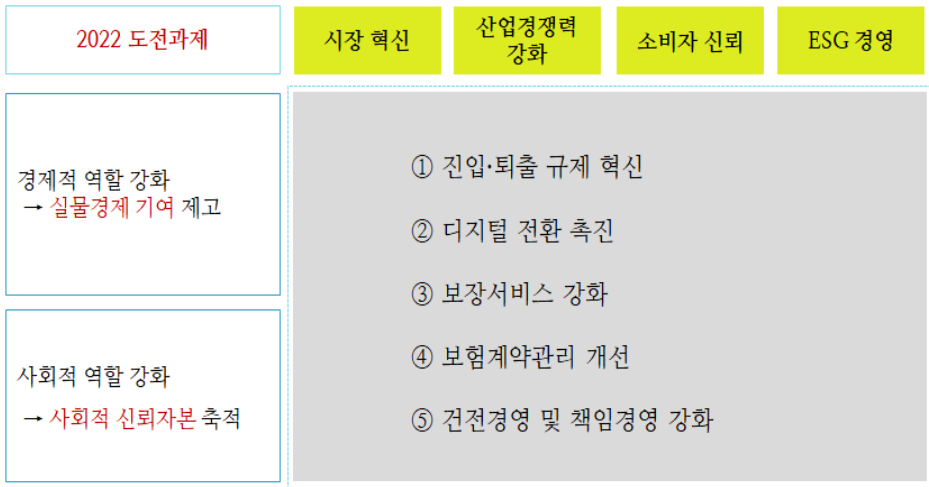
〈그림 IV-4〉 소비자 관점에서 본 보험산업 환경



자료: 김세중·김유미(2021), 「Next Insurance (II): 인구구조 변화와 보험산업」, CEO Report를 수정 인용함

- 보험산업은 시장 혁신, 산업경쟁력, 소비자 신뢰, ESG 책임경영 측면에서 실물경제와 사회적 신뢰자본 축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입·퇴출 규제, 디지털 전환, 보장서비스, 보험계약관리, 건전경영 및 책임경영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그림 IV-5〉 2022년 보험산업 도전과제



2. 세부 과제

가. 진입·퇴출 규제 혁신

- 보험산업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 기업에게 신시장 개척을 통한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진입·퇴출 규제를 혁신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인 사업모형 전환 등 동태적 경쟁을 통한 질적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2010년 이후 생명보험 3개사(전업사 2개사 포함), 손해보험 2개사(전업사 1개사 포함)만이 신규 진입했으며, 보험회사의 조직형태는 변화가 없었음
 - 상품·가격 규제 및 경직된 진입·퇴출 규제 등으로 상품 다양화 및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단종·전업 보험회사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임
- 1사 다면허제 전환, 사업 구조조정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참여 및 비효율적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진입·퇴출 규제를 비례성 원칙(Proportionality) 기반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1사 1면허 허가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그룹 조직형태를 허용하여, 보험회사의 사업다각화 및 구조조정 등을 촉진하여야 함
 -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계약이전 및 계약재매입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잔존계약(Run-off; 신규 판매가 종료된 보유계약) 시장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시장참여자가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될 때, 시장 규모·리스크 특성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진입·퇴출 규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디지털 전환 촉진

-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소비자 중심으로의 사업모형 혁신뿐만 아니라 보험시장에서 팽배한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음
 - 현재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역선택·보험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수익성, 모집인 수수료 중심의 상품 추천 등

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함

- 정보 부족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는 보험료 인상, 계약인수 및 지급심사 강화 등으로, 소비자는 보험계약 해지와 민원제기 등으로 대응하고 있어 산업의 효율성이 하락하고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 현재 국내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초기 단계로 평가되므로, 보험회사는 디지털 전환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최고경영자의 강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임

- 예전보다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목표 및 사업계획 수립은 아직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최고경영자의 단기성과주의)의 영향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소비자 중심의 사업모형으로 전환하면 성장성·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

○ 보험회사의 사업모형 전환과 확장 환경이 정책적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보험회사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신시장 개척을 통한 성장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다. 보장서비스 강화

○ 보험산업은 기존 보험서비스의 개선은 물론 보험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한 보장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음

-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관리, 장기 요양서비스, 전기차·자율주행차 보험제도, 헬스케어서비스, 기업 위험관리서비스 등에서 보장 기능 강화가 필요함

○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화 시행,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비정상적인 비급여 진료를 줄이는 민관 협의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등 비급여 진료의 원가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비급여의 가격·사용량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령층에 진입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의 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는 장기 요양과 관련한 일련의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정책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장기 요양기관에는 토지·건물의 소유를 요구하는 등의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개인은 물론 기업의 위험관리자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공사 협력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의 범위 및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모호한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자연재난, 감염병, 사이버위협 등 대형재난으로 재물 및 영업중단 위험에 대한 노출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휴지보험을 포함한 종합적인 위험관리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라. 보험계약관리 개선

- 온라인플랫폼과 공정경쟁, 대형 판매자의 판매책임, 민원처리의 적정성 제고, 보험계약 유지율 공시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관리 개선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모집시장 참여는 소비자 후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나, 보험회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온라인플랫폼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되는 전자금융업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의 직접 시장 진출과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대형 GA 등에 대해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금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형 GA와 보험회사의 연대책임제도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선호로 이어져 소비자에 대한 대형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단순 민원처리는 외부로 분산하고, 감독당국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민원에 집중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원의 대다수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민원업무를 경감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

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분산 대상 민원의 범위 및 분산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약 유지율 정보공시를 통해 시장규율을 통한 보험산업 신뢰회복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약 유지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마. 건전경영 및 책임경영 강화

- 저성장·저금리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경영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경영 요구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보험부채 회계제도(IFRS17)와 위험평가 및 자본규제(K-ICS)의 시행이 1년(2023년)을 남겨 둔 상황이어서 건전경영 압력이 최고조에 달할 것임
- 2023년 시행 예정인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제도는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기적인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유럽은 Solvency II 도입 이후 자본관리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상품개발, 소비자 보호 등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매년 점검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파악함
- 경제성장과 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투자자의 장기 투자 활성화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의 장기 투자 여력은 낮아지면서 민간자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보험회사의 장기 투자자 역할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도입 예정인 시가평가 기반 자본규제(K-ICS)는 보험회사에 경기순행적(Procyclical) 투자행위와 단기 중심의 위험관리를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의 ESG 책임경영 활동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비재무 관련 공시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ESG 공시의 기본 틀 안에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비재무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공시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저자약력

김해식 St. John's University 경영학 석사 / 연구위원
E-mail : haeskim@kiri.or.kr

김세중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sjkim@kiri.or.kr

최원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 수석연구원
E-mail : kinowon@kiri.or.kr

김혜란 건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 연구원
E-mail : hrkim@kiri.or.kr

김유미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umi_kim@kiri.or.kr

김윤진 City, University of London 보험계리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oonjinkim@kiri.or.kr

연구보고서 2022-02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발행일 2022년 2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고려씨엔피

ISBN 979-11-89741-72-3
979-11-85691-50-3(세트)

(정가 10,000원)